

2009년 1월 ~ 3월 제28호 소식지

장애인생활시설
*SF 성프란치스꼬의집

• 새하얀
목련꽃이 피었습니다.



인내와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노래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 눈 앞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담아서

믿고 노력하면 소중한 건

꼭 찾을 수 있습니다.

눈 내리는 봄, 문득 하늘을 보니

새로운 계절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계절의 끝이기에 슬프고

다른 계절의 시작이기에

황홀한 새 봄의 이름은

바로 **희망**입니다.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中에서

경기마다 예쁘고 사는 계획을 다고 해도 볼을 찾습니다.

모두들 힘겨운 이때 여러분의 사랑으로 프란치스코의

집 가족은 희망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집을 타락하기도 목련이 탐스럽게 피었더니하고,

수신화면 개나리가 얼굴을 대입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들르기 볼을 느껴보세요.

작간이나 마침들 것들을 잊고 행복한 미소를 달아가시길
바랍니다.

CONTENTS

2··· 목차

3··· 여는 글

4··· 우리들의 이야기 I

글리라홀 준공식 및 예술제

6··· 우리들의 이야기 II

겨울캠프

8··· 우리들의 발자국

9··· 라파엘의 그림세상

10··· 당신이 머무는 자리

12··· 후원안내

행복은 가까운 곳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며...

안녕하십니까! 소식지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사무국장 김형우입니다.

지난 2월 1일 성프란치스코의 집에 입사하여, 사회복지현장의 첫 근무지였던 장애인시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복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가족들과 직원들이 참 예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 후원자분들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 문구가 가슴에 촉촉이 젖어들을 성프란치스코의 집 가족들을 통해 다시 깨달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거친 호흡으로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지난 시절 고마웠던 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두 번째 행복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세 번째 행복은 우리 가족들의 눈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 담겨진 소중한 행복을 확인하는 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 소중한 행복은 저희가 꽃보다 아름다운 얼굴이 되게끔 해주신 자원봉사자님들과 후원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셨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상투적인 칭찬과 감사의 언변이 아님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집 장애인들 모두 주어진 자신들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체들입니다. 다만 치열한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조금씩 힘을 보태어주심으로써 인생의 관망자 또는 구경꾼이 아닌 주체자가 되도록 해주고 계신 겁니다.

저 역시 그들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모두 성프란치스코의 집 가족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의 결실이 가족들의 얼굴과 저희 직원들의 얼굴에서 매일 매일 확인할 수 있음은 축복받은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산으로 가면 되듯이,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인생을 저희 가족들과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여기 온 후로 얻은 최고의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식지가 발간되어 질 즈음엔 이곳에서 근무한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저는 또 다른 행복을 발견하고 있겠지요... 웬지 이곳 성프란치스코의 집에서는 많은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 속에서 행복이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인든 ‘나’를 사랑하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과 환경을 사랑 할 것이란 비밀의 서약입니다. 그 비밀의 서약은 이곳 성프란치스코의 집을 찾아주시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맺어 나간다는 점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는 부칙 시행조건이겠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집 사무국장
김형우 드림

발행일 : 2009년 4월 3일(금)(제28호)

발행처 : 성프란치스코의집

발행인 : 임태호

편집인 : 박민정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390번지

전 화 : 622-1652, 626-5766

팩 스 : 622-1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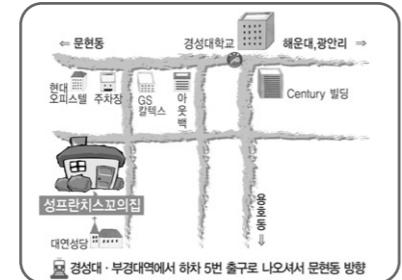
e-mail : fran1652@hanmail.net

홈페이지 : www.francischohome.or.kr

해피빈 :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인쇄 : (주)아임커뮤니케이션

찾아오는 길



글라라홀 준공식 & 예술제



2월 14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축하 속에 신축 강당(이하 글라라홀) 완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날까지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일에는 하늘도 깨끗하고, 바람도 잠시 멈추었답니다. 우리 참 복이 많죠? 귀한 분들 모신다고 하늘도 협조를 해 주니 말이지요. ^^

글라라홀은 기존 지하 강당보다 래직한 환경에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하여 국가기능보강사업비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완공 후 첫 행사가 '성프란치스꼬의집 예술제'였습니다.

윤지형 관구장님, 이종철 구청장님, 황소진 부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님을 비롯해 각 장애인복지시설장, 제 단체장 등 내빈들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구장님의 축성식으로 준공식을 시작했습니다.

축성식이 끝난 후 터 미련부터 완공까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상영과 함께 글라라홀 사업보고를 하고, 준공을 하기까지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준공식 후 성프란치스꼬의집 예술제(예전 천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공연에 앞서 우수봉사자 인증배지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이 200시간, 500시간이 되기까지 참 많은 세월을 저희 집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드리는 인증배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예술제는 상활인들의 스포츠댄스로 막을 열었는데 귀여운 영애와 세진이의 공연에, 보시는 분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댄스가 끝나자 이에 질세라 직원들의 살사댄스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원투 원투하면서 박자를 열심히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 된 호흡을 보여 준 생활인과 직원의 흥겨운 음악에 맞춘 훌체어 댄스는 원더걸스와 손담비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 날 준공식과 예술제를 축하해 주기 위해 디락전통예술원과 팝핀 준호님께서 열정적으로 공연을 해주셨는데 언제 들어도 어깨가 들썩이는 우리 가락과 팝핀의 절묘한 조화로 관객들의 박수를 끌어냈습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열정만큼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폰 우리 집의 빅뱅 '빅밴드'의 힙주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저희라서 이번에는 보답하고자 준비했는데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적북적 잔칫집 기분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 날을 멋진 사진으로 남겨주신 강종관 교수님과 박철민, 백가현, 이돌점 선생님, 대연성당 홍보분과 김윤범 베드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 감사패 ●

이동영(마루·길 건축사), 민화자(우정기업 대표), 오주섭(우정기업 현장소장)

● 그린배지 (200시간 이상) ●

김선미, 김순옥, 김지은, 임정복, 허경희(이상 세탁봉사), 김호중, 박종섭(이상 나들이 봉사), 연기순(혜남학교 급식봉사), 천금자(불반사구요법), 최진욱(사회체험활동)

● 실버배지 (500시간 이상) ●

김광필, 전미경(여가프로그램), 이득희(세탁봉사), 정옥희(주방봉사)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햇님방&바다방_경주 일원**

바이킹 타려고 기다리다가 막상 탈 때가 되자 무서워서 화장실 간다고 빠져나간 김OO. 알고 보니 화장실 가려다 놀이기구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나 어쨌다나. 흥이 많은 우리아족 어딜 가나 티가 납니다.^^

**달님방&별님방_김해 무척산 관광 예술원 농촌체험**

우리가 간 걸 환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부산에서는 보기 힘든 눈을 원 없이 맞았어요. 농촌 총각이 김OO씨에게 호감을 가져 좋은 결과가 있을 뻔 했었답니다.^^

**미리내방_거제도 일원**

하필 가장 추웠던 날에 가서 바비큐 파티를 하려고 보니 손도 얼고, 고기도 얼고, 상추도 얼고.. 이 외중에도 끝까지 쌈 써먹었다던 미리내방.. 거제도 특산물인 장어구이를 먹고 12시가 넘도록 잠을 못 이뤘다는 후문도 들려오네요.

**하늘방_해남 땅 끝 마을**

가는 데만 4시간 걸린 전남 해남. 우리는 두륜산 케이블카를 타고 싶었을 뿐이고~그러나 '1박 2일' 촬영 후 방문객이 많아 케이블이 끊겨 못 탔을 뿐이고~ 해남 땅 끝 마을 갈 때 모노레일 타고 가려 했으나 갑자기 당일 '수리 중'이라고 할 뿐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딱 맞았던 하늘방.

**가람방&미리내방_경남 의령 산천렵 마을 농촌체험**

떡매치기, 짚풀 공예, 망개떡 만들기, 경운기 타기 등 도시에서 접하기 힘든 여러 활동들을 체험한 가람방. 이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가족들 사이에 우애가 더욱 끈끈해졌겠죠?





1. 조금 늦었지만 2009년 福 많~이 가져가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 복이 절로 따라갈 거예요.^_^ 프란치스꼬의 집도 시끌벅적한 '설'을 보냈습니다.
미사를 봉헌한 후 원장아빠와 안토니오 신부님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이모들과 삼촌들의 세뱃돈까지 준비해주시는 센스!^_^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번 설에는 사먹는 인절미보다 맛도 좋고 정성이 가득한 인절미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겨울캠프서 몇 번 해봐서인지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2. 1월부터 4월까지 지원봉사 단체별로 변경된 직무설계 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평가 때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 적극 수렴해서 보다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_^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 프란치스꼬의집 가족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3. 부산 혜남학교와 혜성학교 생활인들의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세요~
졸업 이수혁(유치부), 황다솜(초등부), 고숙희, 백숙이, 이기원(중등부), 김성수, 김우정, 유창선(고등부), 서광해, 정화경(전공부)
입학 김재연, 조인성(초등부), 졸업생 중 전공부 외 모두 상급학교 진학
4. 1월12일~2월3일,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서진아, 신경미, 차애진, 최고운 선생님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의 기억과 경험들이 선생님들을 원하시는 곳에서 능력을 맘껏 펼치는데 값진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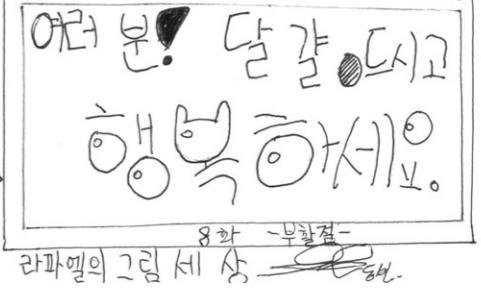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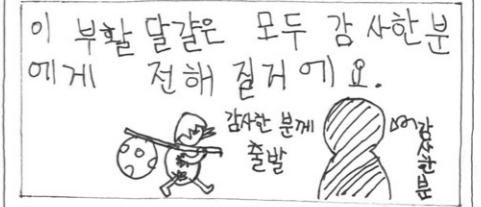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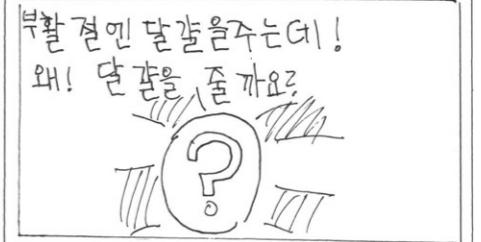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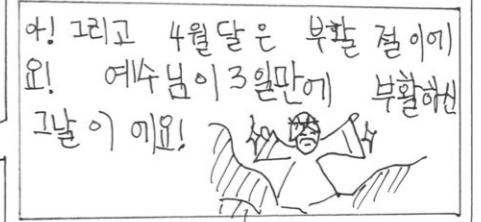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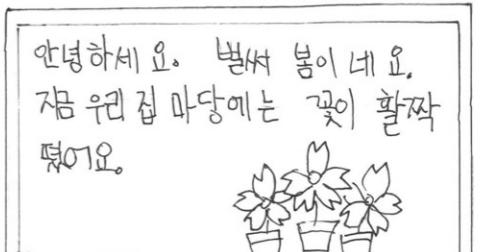
드디어 여러분의 공으로 2월에는 양산통도환타지아에, 3월에는 딸기농장에서 사회체험활동을 했습니다.
사랑의 공은 생활인 7명, 11 지원봉사자 7명, 지도교사 1명의 활동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한 활동모습은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franlo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사용내역(1월분 총 후원금 사용)		3월 사용내역(2월분 총 후원금 사용)	
사용내역	금액	사용내역	금액
입장권 및 이용료	250,300원	체험비	176,000원
간식비	27,870원	간식비	25,680원
고속도로 통행료	8,000원	점심식사	96,000원
합계	총 286,170원	고속도로 통행료	8,400원
	총 후원금 123,800원/자부담 162,370원	합계	총 306,080원
			총 후원금 202,900원/자부담 103,180원



* 이 만화는 미리내방 서동민(14세)의 작품입니다.



8학년 -부활절-
라파엘의 그림세상
한해-

자원봉사/후원

(2009년 1월 1일 ~ 3월 31일)

| 기자원-목록 |

곽명순 김성구 김성환 김우진 남병훈 박재홍 손준열 신유경 이도형
이민주 이지혜 임석기 장태영 정형석 최유라 허형규
귀족의드락 라온공동체 보건교사회 부산30대의쉼터 절영희

| 기자원-세탁 |

김영미 민혜경 서영숙 성꽃지 이복금 이영수 정양자 채장숙 허경희
겸손하신모후(선포성당)/교회의어머니,상지의옥자,즐거움의원천(우동성당)/
능하신정녀영광의성모(남천성당)/모든성인의모후(광안성당)/성실하신어머니
(연산성당)/위로자의도후(좌동성당)

| 기자원-이·미용 | 뉴비전미용실 뮤하어

강미연 고봉희 김미란 김미옥 김분자 김수희 김숙이 김영엽 김영혜 박양주
박영자 박정애 박경화 성세훈 신정범 연기순 예춘희 오성옥 오성희 육정련
유종순 윤미정 윤수미 이경희 이근옥 이시은 이아름 임화숙 장승한 장영애
장효선 장상화 정옥희 최장희 최진영 한수정
지혜로운동정녀(남천성당) 희망자장

| 노령봉사 |

김경빈 김국선 김밀분 김재윤 김현준 백정희 정건택 정순자 지안순 최복례
탁영길 하선교 허유빈
국민연금부산자사 국통사55통신파트너 금호렌티카부산경남지점 내성로터택트
대연3동한국무용반 망마독서회 목련 바로미 솔잎 여로이 함께 절영희 청솔회
해군작전사령부한병전대

| 업무보조 | PAM

| 프로그램(여가 외) |
김영주 김영진 문영미 방인성 이도영 이승원 장미정 정희용
민심사랑 부산맛집술집 부산장애인체육회 사랑나눔터 여로이 함께 우암동주민
센터 청맹동도예공방 하인비둘기사랑모임

| 의료지원 | 김주영 노민자 천금자

| 학습지도 |
고권진 김미덕 김예슬 김지윤 박현희 변수정 서지현 손은선 양해림 여정윤
오송이 우필운 이동준 이아름 이정민 이현주 장희진 전희숙 최명희 흥기하

| 홈페이지관리 | 김성필

| 신규후원 |
김근용 김도훈 김민수 김옥석 김유진 김정현 남기한 미리루시아 박옥선
박용운 박자숙 은종신(강소라) 장세비 정사회 조용철 차남희 최덕수 최민구
최용욱 동사협동판

| 개인후원 |

강보라 강수무 강영규 강영숙 고영실 고평년 공숙희 공주경(공병우) 공진아

파라다이스글로벌(주)/평화의어머니/후원협의회/후원미사봉헌금

| 모금합후원 |

동아슈퍼/대연성당물방조선칼국수경상대점/알리안츠생명제일자점/평화장터/
한가족요양병원/GS25고정본동점/SC제일은행대연동지점/SKT경도대리점/
SKT비트대리점/SKT해운대종합대리점

| 물품후원 |

김동일 김한석(유명희) 백광현 송경순 이영숙 이형균 장영표 정서희 최정녀
최철호
강림중국관/국민건강보험공단/농수산물유통공사부산울산지사/대연방앗간/
박창수한의원/부산맛집기행/부산복지개발원/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시립박물관작원상조회/부산시청건축주택과/부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산종합사무구구/세종클럽/쇠고기집미술한국밥/아이올리/여로이 함께/
옵스엘자점/우암동주민센터/청솔회/팁웨이미드/하인비둘기사랑모임/익명

| 해파인 콩기류 |

김보민(남파동생)/김진민/강태/밥처리/부맛술콩자금통/부맛술 콩저금통/
부산맛집술집멋집/사람냄새/서원용소소/려운이웃에게따스한손길을/엔느/
여행스케치콩자금통/우니/조산천자와콩저금통/최규호/콩콩/키카/프린켑스/
/cejhot/dlawpals111/geonu6/geonu6의콩저금통/
/hy517/860212/jahre916/kimju/lastzorewoo/linst3242/hamumada/
pmj297/soda/syssuk66/vndh7803/hlog.hf0901060316472

| 1/4분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수입		사용	
기부금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67,828,645	인간비	15,031,160
지역사회후원금	40,649,670	사무비	5,895,850
결연후원금	560,000	시설비	35,953,967
		사업비	5,633,150
		의료비	2,266,940
		교육비	676,200
		프로그램사업비	10,245,618
계	109,038,315		75,702,885

| 2008년 결산 수입부 |

계정과목		2008년
관	항	목
보 조 금 수 입	경상보조금	생계비 75,886,240
	수입	인간비 758,394,000
		운영비 120,132,900
		자활사업비 2,060,000
기타보조수입	기타보조수입	3,186,200
	후원금수입	157,897,015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115,188,959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48,701,556
잡수입	잡수입	7,996,595
합계	합계	1,389,443,466

| 2008년 결산 지출부 |

계정과목		2008년 결산
관	항	목
사무비	인간비	827,711,110
	업무추진비	2,580,000
	운영비	53,002,221
재산조성비	시설비	270,647,045
	운영비	135,424,118
	교육비	11,105,900
사업비	프로그램사업비	13,716,399
	09년 이월금	75,256,673
	합계	1,389,443,466

| 2009년 1차 추가경정 수입부 |

계정과목		2009년 예산
관	항	목
사업수입	사업수입	대관사업수입 6,874,807
	경상보조	생계비 82,977,120
	금수입	인간비 875,009,940
		운영비 142,345,360
기타보조수입	기타보조수입	자활사업비 4,800,000
	후원금수입	기타보조금수입 6,700,000
차입금	차입금	후원금수입 200,000,000
전입금	전입금	기타차입금 636,100
이월금	이월금	법인전입금 5,000,000
잡수입	잡수입	이월금 75,256,673
	합계	10,400,000
	합계	1,410,000,000

| 2009년 1차 추가경정 지출부 |

계정과목		2009년 예산
관	항	목
사무비	인간비	957,900,220
	업무추진비	6,800,000
	운영비	71,752,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168,920,000
	운영비	149,152,000
	교육비	16,100,000
사업비	프로그램사업비	24,700,000
	잡지출	잡지출 57,578
	예비비	예비비 14,100,000
	합계	1,410,000,000

◎ 편집과정에서 이름이 빠진 분계시면 양해를 구하며
꼭 연락주세요~

622-1652

사랑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됩니다.

| 후원안내 |

- 일 반 후 원 : 생활인의 생활과 서비스, 시설운영에 쓰이는 비용을 자유롭게 후원
- 결 연 후 원 : 특정 생활인과 결연하여 정기적으로 후원
- 물 품 후 원 : 괴일, 생필품(디펜드 소중형, 대형, 특대형(프리미엄), 하기스 특대형, 하기스 물티슈) 등
- 지 정 후 원 : 캠프, 프로그램,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사랑을 나눠 주시려면...

예 금 주 : 재)끈벤뚜알 성프란치스코 수도회(성프란치스코의집)
제 일 은 행 : 507-20-397452 / 국민은행: 556601-01-233237
부 산 은 행 : 036-01-033700-8 / 우리은행 1005-900-942145
농협중앙회 : 936-01-105492 / 은행지로: 7634437
은행계좌 입금 외에 모금함, 해피빈, 지역단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후원참여도 있습니다.

담 당 자 : 박민정 (☎ 622-1652)

※ 법인세법24조, 소득세법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부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습관, 해피빈

콩 심으세요~ 2009년부터 콩 후원금은 사회체험활동의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꿈은 자립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더디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을 통해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사회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월 둘째 일요일에 실시합니다.

사회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장애로 인해 사회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생활인들에게 괴일수학, 게임을 통한 규칙 익히기, 공연관람 등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회기술을 익힐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함께 해 주실 거죠?^

콩모으는 방법

- ▶ 네이버 '콩메일 보내기' 체크박스 클릭
- ▶ 콩 Give Day!! 매월 15일 해피빈에 접속해서 배너를 클릭
- ▶ 메일 마일리지 전환 500점당 콩1개로 전환
- ▶ 후원업체 배너 클릭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또는

해피빈에서 성프란치스코의 집 검색

